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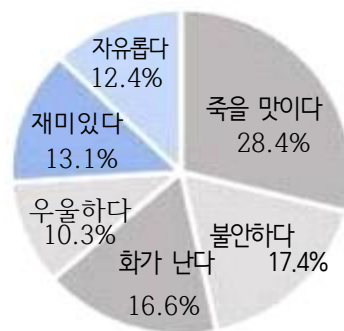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지원 방안

배재대학교 조경덕 교수

1. 실태조사 결과

대전시의회 코로나19와 청소년연구회가 2020년 12월 배재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조경덕 교수)에 의뢰해 대전지역 남녀 초·중·고 청소년 81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등교 시간의 감소 및 온라인 비대면 수업의 증가에 따라 청소년의 삶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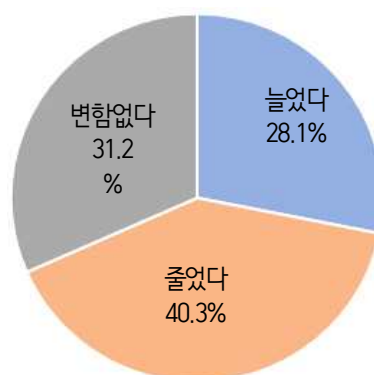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코로나 이후의 마음 상태는 ‘죽을 맛이다’(28.4%), ‘불안하다’(17.4%), ‘화가 난다’(16.6%), ‘우울하다’(10.3%) 등의 부정적인 응답이 72.6%로 ‘재미있다’(13.1%), ‘자유롭다’(12.4%) 등의 긍정적 응답보다 약 3배 가까이 많았다.



[코로나 이후의 청소년들의 마음 상태]

이 결과를 초·중·고 별로 분석 해 보면 중학생들은 초등학생들과 고등학생들에 비해 ‘죽을 맛이다’(28.9%), ‘불안하다’(13%), ‘화가 난다’(15.9%) 등 다양한 정서 반응을 보였다. 초 등학생들이 ‘화가 난다’와 ‘죽을 맛이다’ 등의 정서를 들어낸 반면 고등학생들의 경우 ‘불안하다’ 및 ‘우울하다’ 등과 같이 좀 더 심층적인 심리상태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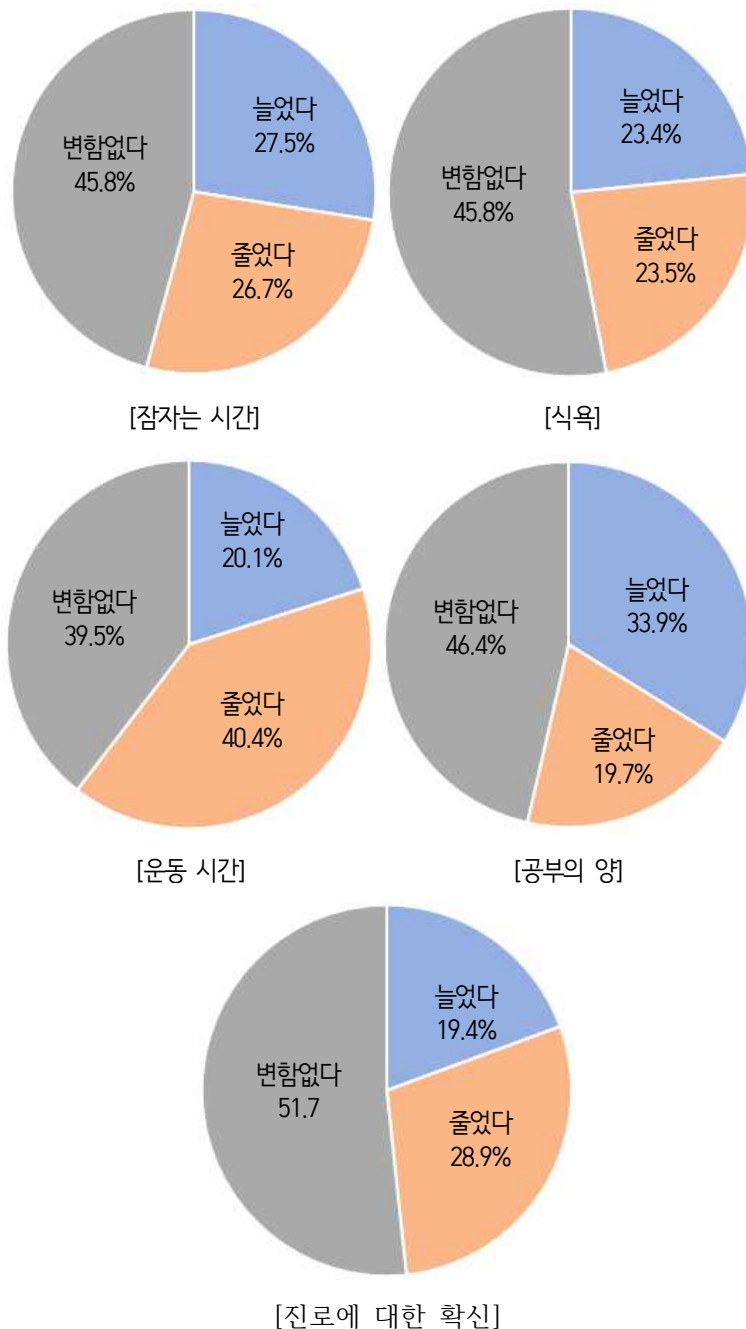
또, 학교에 등교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0.3%로 “늘어났다”고 응답한 청소년(28.1%)보다 많아 전체 68.4%의 청소년이 등교에 대한 심리 상태에 큰 변화가 생겼으며, 부정적인 변화가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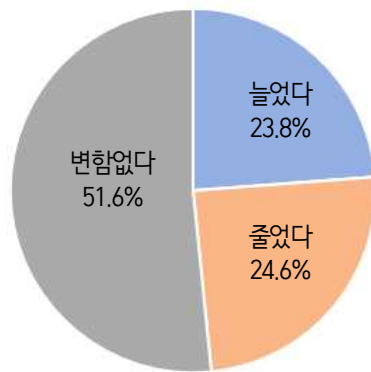
[등교하고 싶은 마음]

이 결과를 초·중·고 별로 분석 해 보면 초등학생들의 경우에 ‘늘어났다’(37.2%)와 ‘줄어들었다’(36.5%)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학생들의 경우 ‘줄어들었다’(41.5%)는 ‘늘어났다’(29.2%)보다 높았으며,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줄어들었다’(41.6%)는 응답이 ‘늘어났다’(18.1%)는 응답의 2배 이상이 높아 고학년이 될수록 공교육이탈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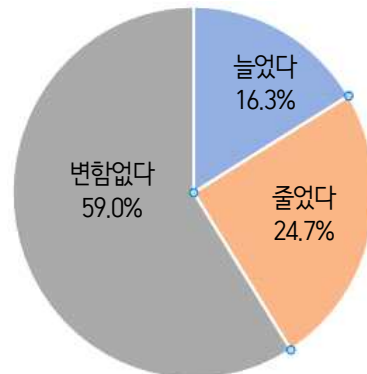
잠자는 시간이 늘거나(27.5%) 줄었고(26.7%), 식욕도 늘거나(23.4%) 줄었으며(23.5%), 운동시간이 늘거나(20.1%) 줄었고(40.4%), 공부의 양이 늘거나(33.9%) 줄어(19.7%) 진로에 대한 확신이 늘어난 청소년(19.4%)보다 줄어든 청소년이(28.9%) 훨씬 많아 절반이 넘는 청소년들이 생활습관과 학습습관 및 심리상태 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 선생님의 생활지도가 늘거나(23.8%) 줄었다(24.6%)고 응답하여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심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원이나 과외가 늘어난 청소년(16.3%)과 줄어든 청소년(24.7%)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사교육에 의한 학력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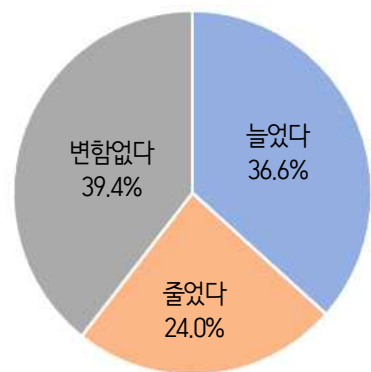


[선생님의 생활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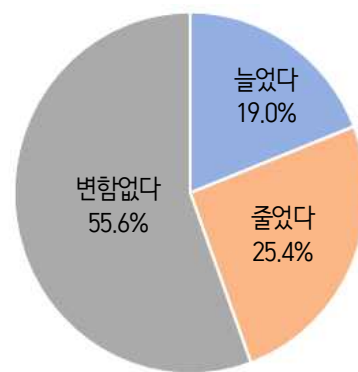


[학원 및 과외 시간]

한편,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든(24.0%) 청소년보다 늘어난(36.6%) 청소년이 많아 가족 간의 갈등은 늘어난(19.0%) 청소년보다 줄어든(25.4) 청소년이 다소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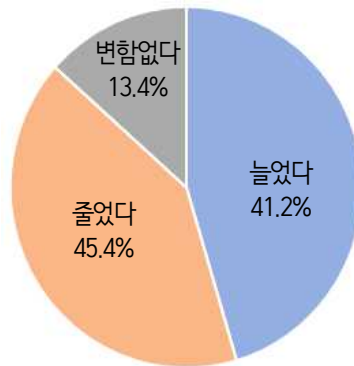


[가족과 보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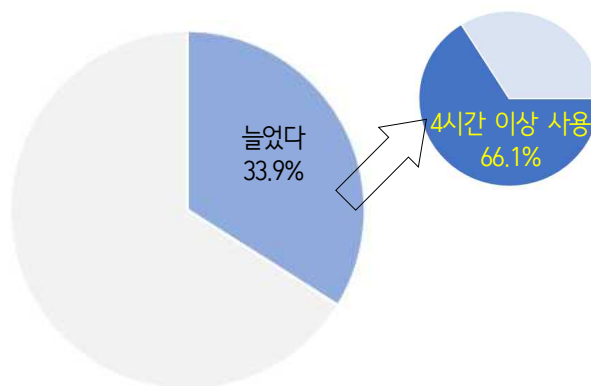
[가족 간의 갈등]

친구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은 줄어든(45.4%) 것에 비해 온라인에서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41.2%) 교우관계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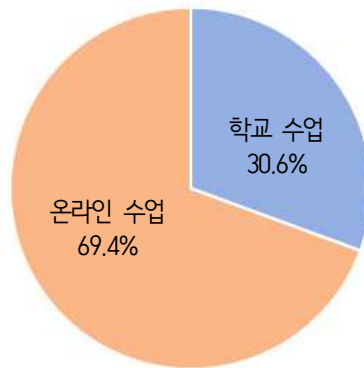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코로나 이후 게임이나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청소년은 33.9%에 달했으며, 늘어난 학생들 중 66.1%가 하루 4시간 이상 게임이나 인터넷을 한다고 응답했다.



[게임/인터넷 사용 시간]

코로나 이후 도움이 되는 수업 방법으로는 학교 수업(30.6%)보다 온라인 수업 등(69.4%)을 선호하고 있어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움이 되는 수업 선호도]

이 결과를 초·중·고 별로 분석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수업’(30.2%)과 ‘실시간 온라인수업’(32.1%) 및 ‘온라인수업’(28.2%)을 선호하였고, 중학생의 경우 ‘학교수업’(23.7%)과 ‘실시간 온라인수업’(21.4%)보다 ‘온라인수업’(41.8%)을 더 선호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수업’(40.9%)을 ‘실시간 온라인수업’(10.7%)과 ‘온라인수업’(30.8%)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코로나 이후 청소년들은 등교 기간이 줄고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행복감이 감소하였으며, 온라인수업에 따른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초등학생들보다는 중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이 더 삶의 혼란을 느끼고 있었고 고학년이 될수록 공교육에서 이탈되는 경향을 보였다. 코로나로 인해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혼란이 교육현장에 밀어닥친 지금, 저학년부터 공교육에서 제공되고 있던 기초학력의 유지, 대인관계의 함양, 일상적인 생활습관의 학습,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스템 구축 및 개입이 필요하다.

첫째, 코로나 방역대책을 철저히 지키면서 오전반 오후반 또는 격주로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등 대면수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 현장의 실태, 학부모 및 학습의 주체가 되는 초·중·고 학생들이 시급하게 원하는 학습 형태, 생활전반 및 대인관계에서의 심리정서적 안정화 대처 등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및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대면수업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삶의 부정적이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관련 기관인 대전시와 교육청의 역할이 요구된다. 즉, 대전시 또는 구·동 단위에서의 청소년들의 학습과 생활전반과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아울러 교육청에서의 온라인수업 및 대면수업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지금의 교육 상황이 코로나로 인한 특수 상황으로 ‘학습지원’, ‘정서 지원’, ‘생활습관유지’ 등이 연합하는 3차원 통합의 허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시와 교육청의 역할을 보조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한시적 지원체계의 조직 및 활동이 단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